

본사 리헌기자의 "선진개인", "선전보도원"상 수상 소감

전국 지식경연 활동시상식에서 빛나는 영예를 안고 귀환



▲ TV 방송국 기자들이 이번 시상식에 참여한 리기자를 취재하고 있다.

4월 28일, 나로서는 평생을 두고도 잊지 못할 날이다. 조국의 최북방 변경에서 수도 북경으로 올라가 성광메디아(星光梅地亞)중앙 CCTV특화제작청에서 성대하게 진행된 전국 "18차 당 대회정신학습, 선전, 관철지식경연 활동" 시상식에 출석하여 중앙 영도들로부터 수여한 황금빛 상패와 함께 "선진개인", "선전보도원"이란 두 영예 증서를 받아들였다. 조직에서 안겨주는 지극한 고무와 격려의 영예이다.

지난해 11월, 나는 중국 기층 당 조직건설넷(中国基层党的建设网)에서 조직하는 지식경연활동참

여에 관한 통지와 함께 "18차 당 대회정신학습, 관철, 지식경연 100 문제 답안지" 한 장을 받았다. 한 개 당원으로서 당사와 당 지식 학습은 의무인데다가 전국성적인 당사 학습고조를 불러일으키는 당의 호소라고 간주한 나는 두말없이 퀴즈활동에 뛰어 들었다. 답안 내용은 중국공산당이 걸어온 역사상의 중요 회의, 중요 사건, 중요한 전역, 중요한 전투와 중요한 인물들을 망라한 중국공산당의 전반 역사를 체현하는 내용이었으며 18차 당대표대회이래로 중국공산당이 취득한 위대한 성취를 구가하는 내용이었다.

중국 기층 당 조직건설넷에서 주최한 이번 지식경연은 중앙 국가 기관, 전국 각 지역 언론매체와 조직선전부, 당무계통, 군정계통 등 부문에서 협력하고 당 중앙조직부, 당중앙선전부, 중공중앙 당 학교, 인민일보사 등 단위의 영도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되는 전국성적인 지식경연이었다.

"통지"를 받아든 나는 즉시 관련 부문을 통하여 "18차당대표의 정치보고"와 "18차 당 대회 영접, 지식경연 500문제", 국가행정학원에서 편찬한 "중공성립90주년 당사 당건 지식경연 600문제" 등 학습 자료들을 사들이고 대학입시마냥, 긴장하고도 속도를 재촉하는 답안 쓰기에 온 정력을 퍼부었다.

한개 문제의 답안, 더우기 힘든 문제들을 찾노라면 책이 날도록 책장을 번져가며 눈이 풀어지게, 세심하게 밝히고 파고 들어가야 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어는 끼니도 잊어가며 "간고분투"해야 했다.

공이 들면 앞길도 환해지고 밝아진다고 5일 동안 알심 들어 100개 문제의 답안을 찾아냈고 뒤이어 2 일간은 찾은 답안들을 다시한번 "출처"와 함께 재확인하여 깨끗하게 정리해서 북경으로 보냈다.

드디어 올해 1월 2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8차당대회 지식경연 조직위원회로부터 보내온 지

식경연 제1진 수상자 후보명단에 들어섰다는 아주 기쁘고도 영광스런 수상통지서를 받아들였다. 이어 4월 18일에는 북경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하라는 정식통지서를 받고 4월 27일, 23시간이나 걸리는 기나긴 장정으로 급행열차를 타고 북경에 도착하여 성대한 시상식에 참석했다.

시상식의 내용은 아주 풍부했다. 중앙 영도들과 중량급 이론 전문가, 교수들의 특강, 예술작품 전시회, 애국선언 싸인 회, 중앙 영도들의 절경과 기념사진 찍기, 성대하게 벌어진 시상식의 초대연회와 초대연출 등 다양한 활동은 말 그대로 300명이 참석한 열띤 학습과 고무, 격려, 단결, 화합, 분발의 분위기로 들끓었다.

대회의 뜻 깊은 학습과 기념으로

중앙 영도들과 기념사진을 남긴 외에도 나는 또 입공매달을 앞가슴에 빼곡히 달고 온 전국도덕모범, 전국 로력모범, 2.5장정의 로전사, 로 팔로군, 유명한 서예가들과 대화를 나눴고 명화장도 교환하면서 뜻 깊은 기념사진도 남겼다.

TV 방송국의 기자들이 나에게 다가와 이번 시상식에 참여한 소감을 물을 때 나는 서슴없이 나의 심상을 토로했다.

"저는 조국의 북방, 흑룡강성 목단강시에서 왔습니다. 저는 당원이고 조선족이며 철도계통의 퇴직간부입니다. 이번에 북경에서 열린 18차당대회 지식경연 시상식에 참가하게 되어 아주 행운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이다.

리헌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CEO 은퇴



▲ 전 알리바바 CEO 마윈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창업자로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마윈(馬雲·잭 마)이 CEO직을 내놓았다.

마 회장은 10일 항주(杭州)에서 열린 사내 행사에서 알리바바 CEO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다.

마 회장은 회사의 전략적 결정에 계속 관여하겠지만 무엇보다 교육과 환경보호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 회장은 지난 1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5월10일 CEO직에서 물러나 회장일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마 회장은 "창업자가 회사를 떠나지 못하면 그 회사는 건강하지 않게 된

다"면서 자신은 젊은 사람들이 뛰어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초 45세가 되면 회사를 떠나려 했다고 말했다. 그의 올해 나이는 48세다.

마 회장은 또 1960년대 출생자의 절대다수가 올해 알리바바의 핵심업무에서 벗어날 것이며 70년대와 80년대 출생자들이 앞으로 주요 자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CEO로 지명된 루자오시(陸兆禧·조너선 루·43) 수석부사장은 2000년부터 알리바바에서 근무하면서 알리바바 판매팀과 온라인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 등을 만들었다.

중국 도시경쟁력 홍콩 1위...북경 6위

중국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중국 도시 경쟁력 순위에서 홍콩이 1위를 차지했다고 북경신보(北京晨報)가 20일 보도했다.

사회과학원이 19일 발표한 '도시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거주, 생태, 정보화 등 지표를 종합해 산출한 순위에서 홍콩, 심천, 상해, 대북, 광주가 1~5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어 북경, 소주, 불산, 천진, 옌이 6~10위를 기록했다. 사회과학원은 수도 북경은 정치, 금융, 교육 분야의 자원이 집중된 장점이 있지만 인구 포화로 인한 인프라 시설 부족과 환경 문제가 발전의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

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경의 인구는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외래인구 742만여명을 포함, 2천18만6천여명에 달했다. 북경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교통 체증에서 초미세 먼지로 인한 스모그 현상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외국인들 사이에 북경 이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종합

중국 대졸자 채용시 나이·호적 제한 없어진다

중국 정부는 대학졸업자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기업 등의 채용시 연령이나 호적, 민족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중국신문망이 17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전날 각 성·시·자치구와 정부 각 부처에 "2013년 대졸생 취업업무 처리에 관한 통고"를 보내 이같이

지시했다.

국무원은 이 통지에서 대졸생들은 취업을 원하는 지역에서 실업 및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기업-졸업생을 연결하는 취업 정보망을 구축토록 했다.

아울러 기층공무원 선발 때 대졸생의 비율을 높이고 과학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대졸생들을 보조인력으로 적극 채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대졸생의 인턴 보조금을 확대하고 기능 및 직업 훈련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올해 전국에서 700만명의 대졸생이 쏟아질 예정이지만 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많지 않아 구직난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의 실업률은 작년말 현재 공식적으로는 4.1%지만 실제로는 8%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졸자들을 위한 이른바 '좋은 일자리'는 많지 않아 대졸자들의 취업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종합

조선족선수 박성 국가팀에 발탁



▲ 5월 22일 중국축구협회가 공포한 새 국가팀 명단에 중국올림픽축구팀 주장이던 연변출신의 박성선수(북경국안팀)가 이름에 올랐다. 사진은 아시아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한국 서울FC와의 경기에서 돌파하고 있는 박성선수.

노래방기계 임대

- 동포단체나 개인, 그리고 업체들에서 각종 행사에 사용 가능
-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계
- 임대료는 10만원/1회이며 배송이 필요할 경우 15만원/1회

문의전화

070-7711-7775
010-6866-0815

한화생명 동포를 위한 보험설계 상담

발고 팔기십시오 역계영봉 현실입니다

내일을 양안 금융 안와생명

- 1.보험 전문가 모집 및 상담
- 2.병원비 걱정인 분(입원,통원 치료 최저 2만원대 가능)
- 3.목 적 자 금 만 들 분
- 4.자동차,연금 등 보험상담

- 아프면 보험생각
- 늡으면 연금생각
-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는 안와생명

누구든 할수 있는 /고소득의 직업 **가업에서 보장까지 한화생명이 함께 합니다.**

FP:정희화 TEL: 031)303-0254 핸드폰: 010-3716-7775

SK Telecom LG Telecom **alleg kt** 공식대리점

최신형 스마트폰 으로 바꾸고

현금 20~50 만원



* 함께 사업 하실분 찾습니다 *

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 (쓰던번호 그대로 사용가능)
매장 방문후 요금제, 핸드폰 자유선택후 당일지금
대출, 다단계, 별정통신, 선물폰이 아닙니다

구로지점 HP : 010-3068-1872
양재본점 TEL : 02-2057-1090